

## 밤낮 기온차 큰 봄철 환절기, 축종별 대응 요령은?

- 급격한 환경 변화로 가축 스트레스 쌓여 질병 발생 위험 증가
- 축종별 맞춤형 환기·보온·위생 관리 강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철 낮과 밤 기온 차로 가축의 환경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축종별 사육 환경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봄철에는 낮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데 반해 아침과 밤 기온은 낮아 축사 내부의 온도도 변동 폭이 큰 편이다. 가축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환절기 관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낮 기온 상승에 맞춰 환기량이나 보온 시설을 한 번에 조정하는 것이다. 가축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냉기를 번갈아 겪게 되면 체온 조절 부담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므로, 단계를 나눠 관리해야 한다.

축종별 주요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한우와 젖소= 비교적 저온에 강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침과 저녁에는 찬 공기 유입을 줄이고 낮에는 환기해 공기를 순환시킨다. 또한, 우사 바닥을 젖은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깔짚을 자주 교체해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젖소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유방염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착유 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

△돼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새끼돼지는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30~35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등 보온 관리에 신경 쓴다. 새끼돼지가 따뜻하게 쉬도록 분리 공간(보온상자) 등 보온시설을 만들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환기할 때는 찬 공기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어미젖을 떼는 시기(이유) 전후 자돈은 사료 섭취량이 줄거나 설사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산란계와 육계= 기온이 올랐다고 보온시설을 한 번에 치우면 안 된다. 낮에는 환기하되, 밤사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병아리는 첫 일주일 동안 32~35도를 유지하고, 이후 일주일마다 약 3도씩 온도를 낮춰 21~24일령에는 최종 온도가 21~22도에 닿도록 관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봄 환절기에는 새로운 관리 기술을 도입하기보다 축사 온도와 환기 상태, 바닥 위생, 가축의 행동 변화를 평소보다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본적인 사육 환경 관리만으로도 환절기 질병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붙임. 환절기 가축 사양관리

|                                                                           |                  |     |     |                    |
|---------------------------------------------------------------------------|------------------|-----|-----|--------------------|
| 담당 부서                                                                     | 국립축산과학원<br>기술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최소영 (063-238-7200) |
|                                                                           |                  | 담당자 | 연구사 | 김정현 (063-238-7203) |
| <div> <div>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div> <div>농업의 모든 것</div> <div>농사로</div> </div> |                  |     |     |                    |

## 붙임

## 환절기 가축 사양관리

###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 성장단계    | 온도, ℃ | 습도, % |
|---------|-------|-------|
| 임신통, 웅돈 | 16~21 | 50~60 |
| 포유모돈    | 18~21 | 50~60 |
| 포유자돈    | 30~35 | 60~70 |
| 이유자돈    | 22~29 | 60~70 |
| 육성초기    | 20~27 | 60~70 |
| 육성후기    | 18~22 | 50~60 |
| 비육돈     | 16~21 | 40~60 |

‘산자수(MSY) 27두 달성’을 위한 사양관리 지침서(2018, 국립축산과학원)

### □ 육계의 적정 육추 온도 및 습도 관리

| 주령    | 온도, ℃ | 습도, % |
|-------|-------|-------|
| 0~1일령 | 34    | 70    |
| 2~3일령 | 32    | 70    |
| 4~6일령 | 30~32 | 70    |
| 2     | 28~29 | 65    |
| 3     | 26~27 | 60    |
| 4     | 24~25 | 60    |
| 5     | 22~23 | 60    |
| 6     | 21~22 | 60    |
| 7     | 18~21 | 60    |

한국가금사양표준, 2022

### □ 참고사진



<돈사 청결관리>



<계사 보온관리>



<우사 소독관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지붕개방 환기>



<건조한 축사 바닥관리>



<깨끗한 급수통 관리>